

전 세계 국가들 조세도피 범죄와 전쟁 중

‘파나마 페이퍼스’ 정보 토대로 대대적 조사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조세도피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무려 1150여만 건의 조세회피 자료를 담은 ‘파나마 페이퍼스’ 추문이 각국의 조세당국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른바 조세 천국으로 불리는 검은 돈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벌써 오래 전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5일(현지시간) 각국이 ‘파나마 페이퍼스’ 추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나섰지만, 영외 조세 도피처를 겨냥한 본격적인 추적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FT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개국 정부가 해외의 조세회피 거래자들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모두 500억 달러(약 57조7000억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 조세회피 스캔들의 진원지인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은 10년 전 1만3200명에서 지난해 4300명으로 줄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조세도피 혐의자들의 면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내로라하는 각국 지도자들과 정계, 재계, 문화·스포츠계 거물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올라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우리시오 마르키 아르헨티나 대통령, 나야즈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이 직간접으로 조세회피처의 검은 계좌들을 이용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시그빈 뒤르 다비

드 퀴로이그슨 아이슬란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등 정부는 ‘파나마 페이퍼스’ 정보를 토대로 대대적인 탈세 조사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대변인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지난 4일 “국제사회가 나서서 가능한 모든 압력을 가해야 한다. 파나마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재무부의 마르틴 예거 대변인은 “우리는 어둠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은 돈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와 국가 간 정보 공유망이 최근들어 대폭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미국 의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을 통과시켰다. 미 국세청(IRS)이 외국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미 국적자의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객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미국은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28억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고객들의 조세포탈을 도와주는 불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근 수년간 영외 조세도피처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OECD 주도로 내년에 새로운 국제 자료공

유 대책이 마련된다.

OECD 조세정책센터의 파스칼 생-아망 국장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조세회피 자료가 파나마 로펌인 모색 폰세카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나마는 OECD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나라다. OECD의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나라들을 피해 파나마로 검은 돈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아망 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보 공유 프로그램이 조세도피를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OECD의 프로그램은 외국 고객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이 세금 포탈을 위해 역외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버클리대학의 가브리엘 저크만 교수는 일부러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크만 교수는 지난해 출간된 자신의 저서 ‘국가의 은닉된 재산(The Hidden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조세회피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그저 파나마 한 나라일 뿐”이라며 “어떻게 돈을 감추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조세도피처로 여전히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첫 모습을 드러내다 인피니티코리아는 6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최초의 디자인 행사 ‘2016 인피니티 디자인 나이트(2016 Infiniti Design Night)’에서 콘셉트 카 Q80을 한국에 첫선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기 주의를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시행사가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받아 채워 달라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인기 있는 오피스텔 분양에 참여, 한 오피스텔 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 대금을 시행사에 줬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좁은 공간에 많은 방을 지을 수 있다. 공실만 줄일 수 있으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아파트 분양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는 이를 유행한 뒤 두주했고, 당첨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 이미 납부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시행사와 신타사, 시공사 등의 역할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행사와 신타사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별개의 회사로, 분양 대금의 경우에는 신타사의 납부계좌로 들어가야 법적 인 효력이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분양 중도금 대출을 주선하거나 분양 광고 등을 맡는다.

반면 신타사는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A씨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신타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지만, 신타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의 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야구에도 가상현실 기술 접목

가상현실(VR) 기술이 프로야구에도 접목됐다.

5일 저녁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위즈(wiz) 홈 개막전은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경기로 치러졌다. kt 위즈를 운영하는 KT는 기기(GGA) VR 모바일 야구를 생중계했다.

G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는 1루, 3루, 포수석에 각 5대씩 설치된 VR 전용 카메라로 야구 경기 순간순간을 360° 영상으로 제공한다. VR 촬영 영상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중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KT가 무료로 제공한 1000여개의 카드보드형 VR 기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기 장면을 다양한 각도의 영상으로 즐겼다. 경기장을 찾지 않은 시청자들도 올레 tv 모바일 앱과 위젯(wizapp)에서 G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를 감상했다.

이밖에 KT는 위즈파크 외야쪽 관람 공간인 하이트립 2층에 국내 최초로 GGA VR 전용 관망석을 마련했다. VR 시청용 HMD(Head Mount Display)와 스마트폰 충전기를 비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VR 야구 관람 환경을 지원했다.

KT는 G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를 홈 개막 시리즈인 7일까지 제공한다. kt 위즈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VR로 제작해 올레 tv 모바일에서도 서비스한다.

윤경림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부사장은 “GGA VR 모바일 야구 생중계는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KT가 선보인 VR 중계 서비스를 상용화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KT는 실시간 고품질 VR 서비스를 이용해 차세대 미디어 선두주자로서 혁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신청 288-9700

KDI “경기둔화 가능성 축소”

서비스업 증가세 유지 등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서비스업이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KDI는 특히 건설 투자와 건설 수주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2월 건설 수주는 주택(+105.8%), 공장·창고(+91.2%) 등의 높은 증가세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85.3%나 늘었다. 건설기성도 건축 부문(+19.3%)이 호조를 보이면서

9.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KDI는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지만 조업일수 증가(+1일)와 반도체 생산 급증(+33.7%)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3.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재고율(128.0%)도 높아 제조업 생산이 부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내수 관련 지표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2월 소매판매 증가율(4.6~8.1%)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3.0~2.6%)은 모두 전달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KT, 금융권 결제 등에 생체인증 서비스

국제표준규격 획득... 하반기부터

KT가 하반기부터 금융권 비대면 인증과 로그인, 결제 등 분야에서 생체인증 기술이 접목된 신규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

KT는 생체인증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FIDO(Fast Identity Online)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FIDO는 온라인 환경에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으로 복잡한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지문, 홍채, 얼굴, 음성 인식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 인증을 마칠 수 있다.

현재 생체인증은 페이팔, 알리페이, 삼성페이 등 국내외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사용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체정보를 그대로 저장해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 단계를 거쳐 새로운 형태 인증정보를 생성해 보안성을 높였다.

KT는 지난날 FIDO 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참여해 서버, 클라이언트(iOS/Android), 인증장치(Authenticator/ASM)에 전 분야에서 FIDO 표준규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 받고 인증을 획득했다.

KT는 하반기부터 금융권 비대면 인증과 로그인, 결제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FIDO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인증 방식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최정문 KT 융합서비스개발팀장 상무는 “핀테크 시대에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FIDO인증기술을 개발했다”며 “이번에 인증 받은 앱 방식 인증장치에 이어 상반기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 저장매체인 USIM을 활용한 FIDO 인증장치를 추가 개발하고 FIDO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